

## 第6章 汎國民 外交

### 第1節 議員 外交

#### 1. 亞洲地域

한·일간에는 기존의 한·일의원연맹을 통한 의원간의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각종 계기별로 의원간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의원외교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양측 의원연맹을 중심으로한 활발한 의원외교는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양국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각종 현안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였다. 한·일 의원연맹은 1992년 9월 일본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한·일 협력위원회는 1992년 10월 일본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1992년 10월 한·일 친선협회 회장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일·한 친선협회 회장단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비정부차원의 교류를 통해 정부간 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80년대 후반부터 민간차원의 실질협력 관계를 착실히 증진시켜 왔으며 마침내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서 본격적인 관계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2년도 양국간 교역액은 82억불에 달함으로써 중국은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에서 양국 국회간의 의원외교는 향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수교이후 양국은 의원교류를 위한 내부준비를 이미 추진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우리 국회는 1992년 12월 김용태 민자당 의원을 회장

으로 한·한·중 의원친선협회를 내부적으로 결성하였다. 중국측도 가까운 장래에 이에 대응하는 단체가 결성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에 의원친선협회가 상호 결성될 경우,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의 회교류는 크게 촉진되어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美洲 地域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속에서 한·미 관계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의교활동이 199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우리의 대미 의원외교는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전통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미간의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의원들은 각종 세미나 참석, 시찰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미주지역의 국회의원, 행정부 인사 및 학계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 상호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방한하는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제고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한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4월에는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의회지도자 협의회(APPLF) 창립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6월에는 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방미하여 최근의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시각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측 입장과 현실

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1984년 이래 우리국회와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 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하는 동북아 안보회의에는 양국의 정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도 미국의 의원 및 학계 인사들과 교분과 교류를 두텁게 하였다.

정부도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및 각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들의 대미 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는 바, 우리 의원들의 미의회 방문 뿐 아니라 미국내 세미나 참석, 방한하는 미국 인사들과의 교류주선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의원보좌관 및 전문위원들을 직접 초청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 하원 외무위와 우리 국회의 외무통일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10명씩의 대학생을 상호교류하여 의회제도 등에 대한 견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2년도 의원들의 외교활동은 해외거주 우리 교민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 활동에도 노력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었는 바, 이는 LA 사태가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2년 4월 LA사태 이후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과 김대중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미국 현지를 방문하여 피해 교민을 위로하는 한편, 현지 당국에도 한국계 미국인의 자립과 재건을 위한 효율적 지원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7월 민주당 및 8월의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참석, 미국의 유력 의회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양국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국의 상·하의원 및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새롭게 미국 정계에 진출한 인사들 및 영향력있는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외교활동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분야에 집중되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국회의원 행사에 박준병 민자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고, 1992년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회의원 회의에 민주당 박정훈 의원이 참석하여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적극 표명함으로써 국제 환경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의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 3. 歐洲地域

1992년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 구주 방문외교는 급격한 국제정세 개편 및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등에 대비하여 서구, 동구권 주요인사 및 기관등을 예방,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중 우리측 의원들의 대 구주 주요외교 활동을 살펴보면, 도영심 의원 IPU 집행위원회 참가(1. 13-2. 1, 아테네), 박정수 의원등 국회대표단 스웨덴 방문(9. 5-14), 민자당 IDU 당수회의 대표단 파견(단장 : 김종필 대표최고위원, 9. 28-10. 5), 박준규 국회의장 체코슬로바키아 방문(11. 13-18, 두브체크 조문사절)등이 있고, 서구제국에서도 Graf Lambsdorff 독일 자민당 당수(4. 14-16), 독일 호르노스 하원 기민/기사 원내부총무 (4. 9), 독일 연방하원 체신위원회 의원단(9. 2), 스웨덴 국회상공위 위원단(9. 24-26), 스웨덴 국회 상공위원회 위원단(9. 25) 방한 등을 통하여 한·구주지역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

였다.

#### 4. 中東·아프리카地域

중동·아프리카지역에대한 의원외교의 목적은 경제적 잠재력이 큰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들과 우호친선 및 경제협력관계강화를 통해 우리의 수출 및 투자시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또한 우리의 정치·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아지역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등 정치, 경제, 문화등 제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여 UN·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이들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동·아프리카 의원 외교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이병희의원 등 한·모로코, 한·코트디부아르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이 중동·아프리카지역을 방문(91. 8. 7-24)하여 국가간 상호 이해증진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Michel Docko 중앙아 국회의장 일행이 박준규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 (90. 6. 19-25.)하였으며, 또한 Al-Masoudi 예멘 여당의원 방한 (92. 7. 6-10), 예멘 의원사절단 방한(92. 9. 9-26)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원외교를 통하여 한·중동 아프리카지역의 우호협력 관계증진과 한반도 통일 관련 문제등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第2節 文化 外交

문화외교는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간의 이해와 협력증대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인식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교류는 기타 제반교류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어 한 나라의 대외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바, 정부는 이를 위해 각국과의 문화협정체결, 문화공동위 개최 등을 통한 정부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우리문화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 외국의 건전한 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계각국과 상호이해 및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1992년도에는 외무부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족되어 동 재단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약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 1. 文化協定締結 및 施行

#### 가. 文化協定締結

우리나라는 1965년 이태리와 문화협정을 체결한 이래 1992년 12월 31일 현재 아시아지역 11개국, 유럽지역 12개국, 미주지역 22개국 및 중동아프리카지역 22개국등 총 76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학술·문화·언론·체

육·청소년·관광 분야 등에서 체약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1992년중에는 러시아와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불가리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제국 그리고 핀란드,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오만 및 알제리 등과는 문화협정체결 교섭을, 스페인과는 문화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 나. 文化共同委 運營

정부는 학술·문화·언론·체육분야등에서 상호 관심사와 구체적 교류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2-3년마다 개최되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총 17개국과 설치, 현재 11개국과 운영하고 있다.

〈文化共同委員會 設置國 現況〉

구분		명 칭	발 족	최근 개최 현황
아 주	인 도	문화공동위	78. 9 (뉴델리)	제5차, 89. 11. 27-29 (뉴 델 리)
	일 본	문화교류 실무협의 회	83. 12 (서 울)	제4차, 90. 3. 16-17 (동 경)
	호 주	문화공동위	89. 5 (서 울)	제2차, 92. 5. 11-12 (캔 버 라)
미 주	미 국	문화교류위	82. 1. 25-27 (워싱턴)	제2차, 84. 12. 5-6 (서 울)
구 주	프 랑 스	문화 및 과학기술 공동위	69. 6. 16 (파 리)	제9차, 88. 5. 16-18 (파 리)
	영 국	문화공동위 (상설혼성위)	84. 2. 2 (서 울)	제5차, 92. 12. 1-2 (서 울)
	독 일	문화공동위	75. 3 (본)	제8차, 92. 11. 3-5 (서 울)
	이 태 리	상설공동위	70. 11 (로 마)	제5차, 88. 12. 6-7 (로 마)
	벨 지 움	상설혼성위	84. 9. 17-20 (브랏셀)	제3차, 89. 2. 13-17 (브 랫 셀)
주 회	회 략	문화공동위	89. 2. 6-10 (아테네)	제1차, 89. 2. 6-10 (아 테 네)
	형 가 리	문화공동위	90. 11. 5-6 (부다페스트)	제1차, 90. 11. 5-6 (부다페스트)

문화공동위를 개최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화교류 시행 계획서를 2-3년 단위로 작성, 서명하여 시행하는 나라로는 이집트, 가나, 터키, 요르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등 중근동지역 국가들과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학술·문화·체육·청소년분야의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文化協定 締結 現況〉

지역	체결 국가	비고
아주(11국)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 단교로 가능 지 상태
구주(12국)	불란서, 이태리, 회랍, 독일, 터키, 스페인, 벨기에, 영국,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미주(22국)	멕시코, 도미니카, 엘살바들, 코스타리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수리남, 볼리비아, 브라질, 알젠틴,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캐나다	
아·중동(22국)	이란,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모로코, 요르단, 쿠웨이트, 모리타니,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시에라레온, 가봉, 케냐, 코트디브와르, 세네갈, 자이르, 라이베리아, 가나, 모리셔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 단교로 가능 지 상태

## 2. 文化交流協力

### 가. 各種 文化藝術交流

1992년은 아·태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한해였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중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한·중 문화교류의 첫번 사업으로 92년 9월 중국 천진잡기예술단의 방한공연에 이어 동년 10월에는 북경 고궁박물관과 우리측 호암미술관간 민간교류차원의 “명·청회화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한·중 문화예술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로서는 “92 한국통신사 일본파견”행사가 92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동경, 오사카, 교토등 일본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는 바, 여기에는 우리나라 학계, 예술계, 종교계인사를 망라한 130여명이 참가하여 창극 심청전 공연, 가야문화대전, 한·일포럼등의 행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짐으로써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한·일간 문화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92년 6월에는 정원식 국무총리의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국 전통예술단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우리 교포가 많은 남미 5개국을 순회공연하여 대성황을 거둬으로써 교민사기진작 및 민족의 자긍심고취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92년 11월-12월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아·태 페스티벌” 및 오키나와 “아·태 예능페스티벌”에 아국예술단이 적극 참여,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소개하였다.

한편, 한·오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로써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비인,

할즈부르크 및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현대도예작가 20여명의 작품 80점이 뒤셀돌프, 파리등 구주각지에서 순회전시되기도 하였다.

#### 나. 海外博物館 韓國室 設置

정부는 해외의 우수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해외박물관내 한국실 독립설치 사업을 민간기금의 도움을 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립한국실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박물관으로는 보스턴박물관, 라성 카운티박물관, Newark 박물관, 상항 동양예술박물관, 시애틀 예술박물관, 비엔나 민속박물관, 체코 Naprsek 박물관등이 있으며 '92년 11월 영국내 2대 박물관의 하나인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내 한국실이 설치되어 5세기-20세기에 이르는 한국예술품 6백여점을 상설 전시하게 되었다.

한편 대영박물관은 한국실 설치를 위한 계약을 우리측과 체결하여 98년 중 동 박물관내 독립한국관이 개관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불란서 Guimet 국립동양박물관, 미국 Peabody 박물관, 뉴욕 Metropolitan 박물관 등의 세계 우수 박물관내 독립한국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 文化院을 통한 文化交流

정부는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경, 뉴욕, 라성 및 파리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문화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7개국에서 문화원을 설치하여 도서대출, 세미나 개최, 영화상영, 어학교습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문화원	위 치	시 설	개 원 일 자
동 경	동경시 풍도구 동지대 3-1-1 Sunshine 60빌딩	전 시 실 어 학 실 강 의 실 자 료 실 도 영 사 사 랑 방 세 미 나 회 의 실 사 무 실	79년5월10일
뉴 욕	460 Park Ave. New York 한국센터 빌딩		79년12월5일
라 성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80년4월11일
파 리	파리 16구 Ave. D'I'ena		80년12월16일

〈주한 외국 문화기관 현황〉

국 명	문 화 기 관 명	설립일자	소 재 지
미 국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1949년	· 서울중구을지로 1가 · 대구, 부산, 광주
영 국	British Council	1973년 8월	서울 중구 정동
프 랑 스	Centre Cultural Francais	1968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독 일	Goethe Institut	1967년 9월	· 서울 용산구 후암동 · 대전지부 · 부산지부
일 본	광보문화원	1971년 8월	서울 종로구 운니동
이 태 리	Italian Cultural Centre	1987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포르투갈	Portuguese Cultural Centre	1990년11월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라. 民間外交活動 支援

사회가 다양화되고 국제관계가 복잡해 질수록 민간분야의 역할이 급속히 증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며, 외교에 있어서도 민간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다양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의 공식 외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협조하여야 효과적인 국위선양, 국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외무부가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외무부에 등록된 사회단체들은 세계 여러나라 국민과 우리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함은 물론, 국민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 단체의 학술연구, 출판 및 문화교류 활동,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협조와 주요인사 예방주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무부에서는 1992년 중 안의태기념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는 등 4개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한·러친선협회등 4개 사회단체의 등록을 접수하여 민간외교단체의 숫자는 허가법인 65개(사단법인 51, 재단법인 14), 등록사회단체 86개가 되었다.

(1992년 외무부 소관 법인설립허가 및 사회단체등록 실적)

구분	단 체 명	허가·등록일	대 표 자		소재지(전화)
		(번호)	성 명	직 업	
재단 법인	안익태기념재단	1992.12.14 (254)	전봉초	예술원 회원	강남구포이동233-3상 화빌딩2층(575-0740)
	사단 법인	해외한민족 연구소	1992. 5.25 (248)	박정수	국회의원
사회 단체	세계선린회	1992.11.24 (251)	서영훈	- 민자당	종로구 종로2가 9 (752-0622)
	아세아태평양 경제문화연구소	1992.12. 1 (253)	윤석현	중앙상무 위원	강남구대치동 944-31 섬유센터 1307호 (528-5111)
	한국해로연구회	1992. 4.15 (247)	김달중	연세대 교수	서대문구 신촌동 134 (361-3506)
	" 한국·러시아 공화국친선협회	1992. 7. 20 (249)	박인석	-	강남구역삼동745-3신 우빌딩3층(557-4750)
	홍안맹한중친선 문화무역교류협회	1992.11.27 (252)	윤영모	-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15-336
	세계불교법황청 국제협회	1992.12.16 (255)	서경보	세계불 교법왕	종로구 신영동 93 (353-6655)

## 3. 學術交流協力

## 가. 獎學生 交流

정부는 외국과의 학술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및 문화협정 시행계획에 의거 '67년부터 매년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정부장학생으로 초청하여 국내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바, '92년말 현재 66개국에서 274명을 초청하였으며 수혜자는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67-92년간 정부초청 장학생 현황〉

지 역 별	초 청 인 원
아 주 (15개국)	일본 55명, 대만 27명, 필리핀 3명, 중국 2명, 네팔 6명, 몽골 5명, 방글라데시 2명, 스리랑카 3명, 베트남 2명, 인도 7명, 인도네시아 5명, 캄보디아 1명, 태국 9명, 파키스탄 2명, 호주 7명
미 주 (14개국)	멕시코 2명, 미국 9명, 알젠틴 3명, 에쿠아돌 1명, 도미니카 1명, 수리남 2명, 엘살바돌 1명, 파나마 2명, 우루과이 1명, 페루 3명, 칠레 1명, 캐나다 2명, 코스타리카 3명, 콜롬비아 4명
구 주 (20개국)	프랑스 11명, 그리스 3명, 덴마크 1명, 독일 6명, 오스트리아 1명, 핀란드 2명, 카작스탄 1명, 루마니아 1명, 벨기에 2명, 러시아 2명, 스웨덴 2명, 스위스 2명, 영국 10명, 유고 1명, 이태리 9명, 터키 4명, 체코 2명, 화란 5명, 헝가리 1명, 폴란드 2명
아 · 중 동 (17개국)	가나 4명, 가봉 2명, 나이지리아 1명, 라이베리아 4명, 리비아 1명, 말레이시아 1명, 모로코 1명, 수단 3명, 요르단 2명, 이스라엘 1명, 우간다 2명, 이디오피아 1명, 이란 7명, 이집트 4명, 짐바브웨 1명, 자이르 1명, 케냐 3명

### 나. 海外韓國學 振興

1887년 최초로 레닌그라드(현 페테르스부르크)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이후 약 100년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온 해외한국학은 92년 1월 1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무부 산하로 발족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관련 주요활동으로는 i)해외의 한국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원, ii)해외대학, 학술연구단체, 도서관, 박물관등에 한국과 혹은 한국관련 강좌 개설 지원, iii)해외한국연구학자에 대한 방한연구 Fellowship 수여, iv)한국연구 Workshop 개최, v)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순회 강연회 개최, vi)한국관련 국제학술회의 주관 및 지원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거점연구기관을 선정, 중점지원함으로써 해외한국학 연구의 내실화와 다변화를 기할 예정이다.

최근에 이르러,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한국학 증진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해외한국학 연구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92년 12월 18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미국 Berkeley대학에서 한국 및 미국의 한국연구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한국연구학회 회의가 개최되어, 미국내 한국연구 현황 및 향후 증진방안을 토의한 바 있다. 한편 하와이대학에서는 92년 12월 11일-12일간 「한국문학 번역자 회의」가 한·미 양국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조선조 이전의 문학작품 번역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는 바, 92년 외무부에서 문화외교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임명한 문화대사(고창수 대사)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조 이전의 시에 관한 주제발표를 행하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해외한국학 연구는 지금까지의 미주 및 구주지역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독립국가연합, 동구권 등 구사회주의지역, 중국을 비롯한 아주지역

등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학 개설기관 또는 대학은 전세계 33개국 188개에 이른다.

(92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 지원현황)

(괄호안은 집행액)

	미 국	유럽 지역	아주 및 기타	합 계
대 학	18개처 (968,860천원)	4개처 (134,956천원)	3개처 (125,848천원)	25개처 (1,229,664천원 : 29%)
연구소	9개처 (1,550,852천원)	없 음	1개처 (150,687천원)	10개처 (1,701,539천원 : 39%)
기 타	7개처 (1,409,981천원)	1개처 (1,197천원)	1개처 (9,730천원)	9개처 (1,420,908천원 : 32%)
계	34개처 (3,929,693천원 : 90%)	5개처 (136,153천원 : 3%)	5개처 (286,265천원 : 7%)	44개처 (4,352,111천원 : 100%)

다. 韓國觀 是正事業

1975년 국무총리의 외국교과서 왜곡시정 지시로 시작된 한국관 시정사업은 1979년 1월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정부관계부처와 민간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각국 국민에게 청소년기부터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한국 외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의 교과서, 백과

사전, 연감등 출판물의 오류를 시정하는 직접적이고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수준과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질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간접적 조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1992년까지 71개국 교과서 651건의 한국관계내용을 분석하여 14종의 연구보고서와 7종의 관련자료를 작성하였고 외국의 백과사전 26건과 연감 19건에 나타난 오류를 시정하였다. 간접적이고 사전적인 조치로서는 외국의 사회과 교사 및 교과서 관계자 방한 초청, 세미나 개최 및 도서, 자료 기증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국가연합, 동구권등 구사회주의 국가 및 중국 등지에서서의 오류시정 사업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靑少年交流 協力

##### 가. 概 觀

우리사회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국제청소년 교류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교류는 청소년들에게 선진문물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국제친선과 우의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와 가장 청소년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인접한 일본이며, 그외에 미주, 구주, 동남아지역으로의 해외연수, 친선방문, 청소년캠프 참가, 청소년 관계 회의 참석 등 다양한 교류행사가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한·중 수교기념 청소년 친선 방중단이 92년 12월 13일-22일간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한·중 청소년교류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지역 역내 청소년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 韓·日 靑少年交流

한·일 양국정부는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상호 교류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일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청소년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양국간 청소년교류는 1971년 8월 한·일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1972년부터 매년 청소년 20명의 교환방문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외무부간 청소년교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양국정상간 합의나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외무부, 교육부 및 체육청소년부와 일본의 외무성과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등 관계부처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한편, 정부간차원외에 민간차원에서 청소년교류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교류는 물론, 근년에는 우리 학생들의 일본유학이나 일본학생들의 우리나라 수학여행 그리고 양국학생간의 자매학교 상호방문 뿐 아니라, 한·일 학생포럼이나 한·일 학생회의 등 양국 관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통한 교류와 회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정립에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부간 청소년교류 현황〉

사 업 명	시행기관(근거)	사 업 내 용
한·일 외무부간 청소년 교류	양국 외무부(71. 8. 한·일 각료회담 합의)	매년 20명의 대학생대표단을 상호 초청 교류(9박 10일)

사 업 명	시행기관(근거)	사 업 내 용
한·일 청년교류	○일측:JICA ○우리측:국제교류재단 (일측이 「21세기 우정의 계획」에 의거 87-91간 한국청년 500명을 일방적으로 초청한데 이어 92. 1 「미야자와」 수상 방한시 정상회담에서 동사업 연장합의)	○일측:'92-'96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의 한국청년을 30일간 초청 ○우리측:93년부터 5년간 총 300명의 일본청년을 매회 10일간 60명씩 초청(일측 초청사업에 대한 대응사업임) ※교사, 근로청소년, 대학생, 청년지도자등으로 방문단 구성
동북아시아4개국 대학생 교류계획	○일측:외무성 ○우리측:외무부 (92.1.「미야자와」수상 방한시 국회연설에서제의)	○동북아역내 4개국(한·러·중·일)간 첫 대학생 교류사업으로써 각국 10명씩 대표단 파견 ○첫 사업은 93. 2. 22-3. 5간 일본에서 실시
문화체육부, 일본 총무청간 교류	○일측: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우리측:문화체육부 (84년도 양부처간청소년 교류사업계획)	매년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20명을 방한 초청하고 30명을 일본에 파견
학술진흥재단, 일·한문화교류 기금간교류	○일측:일한문화교류기금 ○우리측:한국학술진흥재단 ('88한·일 정상회담합의)	89년부터 양국간 교육·학술·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매년 대학생 90명, 교사 60명씩 상호 단기 교류

## 5. 體育 및 其他 交流協力

### 가. 概 觀

국제체육교류·협력을 통한 각국과의 우호친선 증진과 세계인과의 화합 도모가 우리나라 체육외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을 통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고양에 중점을 두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각국과의 활발한 체육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우의증진과 선린의식 배양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1992년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 참가, 외국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 및 코치 교환, 각국 정부 및 올림픽위원회(NOC)와의 체육교류협정 체결등을 통해 내실있는 체육외교를 전개한 한 해였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5회 하계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손기정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제패이후 50여년만에 마라톤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한국민의 자존심을 한껏 고양한 쾌거였다.

### 나. 바르셀로나 올림픽 및 各種國際競技大會 參加

92년 7월 25일부터 8월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5회 하계 올림픽은 172개국이 참가한 사상최대의 평화와 화합의 대제전이었다.

이 대회에 우리나라는 24개종목에 총 344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29개(금 12, 은 5, 동 12)의 메달을 획득, 종합 7위를 차지함으로써 서울올림픽 4위의 신화가 텃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특히 황영조선수의 '올림픽의 꽃' 마라톤종목 제패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56년만의 쾌거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했을 뿐 아니라, 사격부분 여갑순선수의 대회 첫

금메달 획득과 함께 동 대회 첫 번째와 마지막 금메달을 동일국가가 획득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며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한국을 위한 무대로 만들었다.

또한 92년 2월 8일—23일간 개최된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도 50명의 우리 선수단이 파견되어 스피드 스케이팅 부문 금메달등 금2, 은1, 동1의 메달 획득으로 전체 10위의 성적을 거둠으로써, 한국이 더 이상 동계 경기 약체국이 아님을 과시하였다.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아시아청소년남녀농구선수권대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남녀스피드스케이팅대회 등 각종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우리국민의 명예와 기상을 한껏 과시했으며, 우정과 신뢰에 바탕한 국제친선교류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92년도 주요 국제경기대회 참가실적〉

기	간	대	회	명	개	최	지	성	적
2월8일—23일		제16회	동계올림픽대회		캐나다			10위	
					알베르빌				
2월27일—3월4일		제6회	아시아복싱		태국			1위	
			선수권대회		방콕				
3월1일—5일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인도			남자 3위	
					뉴델리			여자 4위	
3월14일—15일		'92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일본			1위	
			'팀'선수권대회		노베야마				
3월21일—30일		제14회	아시아 여자		한국			3위	
			농구선수권 대회		서울				

기	간	대	회	명	개	최	지	성	적
4월7일-4월10일		제8회	아시아	아마추어	이란			자유형2위	
		레슬링	선수권대회		테헤란			그레코로만형1위	
4월25일-28일		제4회	아시아수영	선수권대회	일본			3위	
					히로시마				
5월23일-30일		아시아	주니어	여자	말레이시아			1위	
		하키	선수권대회		쿠알라룸푸르				
7월25일-8월5일		제25회	하계	올림픽대회	스페인			7위	
					바르셀로나				
8월18일-9월5일		AAA세계	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	멕시코			5위	
					몬테레이				
8월22일-29일		제6회	아시아여자	청소년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			3위	
					쿠알라룸푸르				
9월19일-26일		제13회	아시아	럭비	한국			4위	
		풋볼	선수권대회		서울				
9월25일-10월5일		제7회	세계	주니어	캐나다				
		복싱	선수권대회		몬트리올				
9월25일-10월2일		제12회	아시아	청소년	중국			남자3위	
		남여	농구	선수권대회	북경			여자1위	
10월8일-11일		제16회	세계	청소년	아르헨티나			3위	
		유도	대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10월23일-30일		제6회	아시아	남자	이란			1위	
		청소년	선수권대회		테헤란				
11월7일-14일		아시아	탁구	선수권	인도			3위	
		대회			뉴델리				

다. 海外體育 支援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체육교류증진을 위해 지난 1982년 이래 매년 주요 체육교류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 및 지도자파견, 외국코치 방한초청 연수 등 해외체육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92년에는 베트남, 알제리, 폴란드 등 57개국에 총 8,980여점의 체육용품을 지원하였고, 몽골과 과테말라 등 6개국에 각 1명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 현지 지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립국가연합과 칠레로부터 각 1인의 태권도 사범을 방한초청하여 우리의 선진체육 기술을 습득토록 하였다.

〈해외체육지원 현황〉

구분 연도	체육용품 지원	코치 파견	외국코치 방한초청
1982	스리랑카 등 2개국	네팔 1개국	바레인 등 2개국
1983	수단 등 4개국	네팔 1개국	파라과이 등 2개국
1984	가나 등 5개국	튀지 등 1개국	멕시코 등 7개국
1985	세네갈 등 7개국	태국 등 3개국	오스트리아 등 3개국
1986	이란 등 15개국	도미니카 등 3개국	페루 등 4개국
1987	우간다 등 19개국	케냐 등 1개국	모로코 등 6개국
1988	베네수엘라 등 35개국	에쿠아돌 등 3개국	가봉 등 3개국
1989	나이지리아 등 34개국	우루과이 등 3개국	모리셔스 등 1개국
1990	이집트 등 39개국	부탄 등 4개국	오만 1개국
1991	체코 등 42개국	방글라데시 등 5개국	미얀마 등 2개국
1992	베트남 등 57개국	몽골 등 6개국	칠레 등 2개국

라. 體育交流協定 締結

각국과의 체육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간 및 올림픽위원회간의 노력은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구체화되어 오고 있다.

1992년에도 헝가리 및 독립국가연합과 정부간 협정을, 몽골과는 올림픽위원회간의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이로써 1992년 12월 31일 현재 총 34개국과 체육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오고 있다.

〈체육교류협정 체결현황〉

구분 연도	정 부 간	올림픽위원회간 (NOC)	계
1979		대만	1
1980		바레인	1
1983	도미니카	미국·서독·영국· 스웨덴·쿠웨이트	6
1984	이 라 크	이탈리아·일본· 캐나다·튀니지	5
1985		코스타리카·프랑스	3
1986		탄자니아	1
1987		페 루	1
1988	카타르·이란·헝가리· 스페인	베 넵	5
1989	폴란드		1
1990	말리·유고·불가리아· 루마니아·모로코	멕시코	6
1991	체 코	베트남·라오스	3
1992	헝가리·독립국가연합	몽골	3
계	14	20	34

### 마. 觀光振興 資源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엑스포' 및 '1994년 한국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2000년대 외래관광객 700만명 유치, 관광외화수입 100억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재외공관에 관광진흥대책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등,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시킴과 아울러 아름다운 한국을 세계에 심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바. 都市間 姊妹結緣交流

지방자치제 실시와 아울러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체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및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9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시도 및 67개 시·도·군이 27개국 14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 第3節 對外弘報 強化

#### 1. 先進 韓國像의 對外的 認識 擴散

정부는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해외 각국민의 이해증진과 우리나라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대외인식 확산을 위하여 활발한 대외홍보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국제적으로 냉전종식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을 통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국내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 평화애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과 선진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이러한 태도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선호도로까지 발전하도록 체계적 대외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홍보활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를 취재하는 외국 언론매체들에게 외교정책 브리핑 및 설명회 개최, 본부간부 면담주선등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취재활동을 하는 주한외신기자단을 비롯한 외국의 취재기자들이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자국이나 전세계에 올바르게 소개하도록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각종 취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언론인들은 선진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된 혹은 편

향적인 정보원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언론인들을 방한 초청하여 우리의 실상을 직접 보고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85년부터 주로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 및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매년 평균 십명가량의 중견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소개함으로써,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在外公館을 통한 對外弘報

정부는 또한 세계각국에 주재하는 141개 재외공관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재국의 일반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나 현실상을 올바르게 소개하여 왔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주재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설명회 개최나 뉴스자료 등 간행물 제작 및 배포등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 등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및 주재국 주요인사 면담등을 통하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동경, 뉴욕,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파리에 소재한 한국문화원 외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가 소재 34개 재외공관에 해외홍보를 전담하는 해외공보관을 두고 우리나라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홍보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3. 汎國民的 支持를 基盤으로 한 外交業務 遂行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

민적 이해와 지지에 바탕을 둔 범국민적 외교를 수행한다는 방침아래,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여론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수행중인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기능을 강화하여 외교사안에 관한 여론동향 파악에 힘쓰는 한편, 주요 외교현안을 설명하는 “외교문제해설”을 월2-3회 발간하여 학계, 정계, 경제계등 각 분야의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외교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여론수렴 및 이해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매스컴의 발달로 지방주민들이 국제문제와 외교사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교안보연구원과 전직 대사들로 구성된 외교협회에서 지방대학과의 세미나를 갖고, 지방 행정청 파견 국제자문 대사가 지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제문제 설명회를 갖는 등 외교업무 홍보활동을 지방차원에까지 확대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홍보활동을 정착시키고 있다.